

2011.09.26 미래정책연구실

□ OECD, 농가보조금 30년 내 최저 수준 기록

1. OECD, FinancialTimes(2011.09.21) 주요 내용

- OECD는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해, 선진국의 농업보조금이 30년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지난 20일 발간된 「2011년 OECD 국가 농업정책 감독 평가 보고서」에서 밝힘.
 - 올해 농업보조금 감소는 전세계 농산물 가격 상승 때문이며, OECD가 권고하는 대로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이 변화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함.
- OECD 회원국들의 농가소득 중 보조금 비중은 2010년 18%로, 전년 대비 22% 감소하였으며,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최저 수준임.
 - 국가별 농가소득 중 보조금 비중은 미국 9%, EU 22%이며,
 - 뉴질랜드와 호주가 각각 1%, 3%로 최저, 노르웨이는 60%로 최고
- OECD에 따르면 지난해 34개 회원국들이 지급한 농업보조금은 총 2,270억 달러로, 2009년 대비 6%, 2008년 대비 13% 감소하였음.
- 특히 중국의 농가보조금은 총 1,470억 달러로, 전년대비 40% 증가했으며, 농가소득 중 보조금 비중은 17%로, OECD 평균인 18%에 근접함. OECD는 중국 곡물농가에 대한 직접지불금이 2004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.
-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, 미국·유럽의 이익단체들이 농업보조금유지를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정치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, 이는 DDA 협상에서도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힘.
 - 오늘날 농가보조금 감소를 초래한 농산물 가격 상승은 신흥국가들의 소비 증가,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곡물사용 증가,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생산 감소, 수출금지조치와 비축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언급함.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